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9급 공무원] 한국사 A책형

2015년 서울시 9급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사 A책형 해설을 공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황의방 -

[총평]

최근의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는 사료와 관련된 문제형태가 다수 출제되고 있는데, 2015년에도 그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단편적인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단순암기는 지양하여야 하고, 시대별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가려낼 수 있는 연계형 학습을 지향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주제에 대비하여서는 기본서의 회독 수를 늘려 눈에 많이 익혀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재, 10번 천주교, 12번 문제 등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고, 대부분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90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합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분석(분포도)]

구 분	문 항	정 치	경 제	사 회	문 화
한국사의 바른 이해	-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				
고 대	3	○장수왕 ○발해의 대외관계			○백제의 문화재
중 세	3	○광종		○권문세족	○삼국유사
근 세	2	○의정부서사제 ○통당의 시작			
근대 태동기	3		○대동법	○신유박해	○서적
근 대	3	○갑신정변 ○시대구분 ○국권피탈과정			
일제 강점기	3	○한국광복군	○산미증식계획		○문일평
현대	3	○좌우합작위원회 ○3·15부정선거			○유네스코 유산

1. 다음 글의 밑줄 친 왕이 재위할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하여, 백제왕의 도움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삼국사기-

- ㄱ.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ㄴ.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 ㄷ.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 ㄹ. 신라가 백제와 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① $\neg, \perp$ ② $\neg, \subseteq$ ③ $\perp, \supseteq$ ④ $\subseteq, \supseteq$

답3>

참고> **삼국사(황의방 한국사) 42쪽, 고구려 장수왕(413~491)**

해설> 부여경은 개로왕의 생전에 쓰던 이름이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427)하여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에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은 나제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433). 이후 장수왕은 백제의 개로왕을 전사시킴으로써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고(475),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세력을 넓혔다.

CHECK> ㄱ. 백제 성왕은 대외 진출이 수월한 사비(부여)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으며,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다(538).
 ㄴ. 3세기경 김해의 금관가야는 연맹국가로 발전하였고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2.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 유산이 아닌 것은?

- ① 난중일기 ② 일성록 ③ 동의보감 ④ 비변사등록

답4>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97쪽,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해설> ④ 비변사등록은 조선중기 이래 국정상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최고 의결기관의 비변사에서 매일매일의 업무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비변사등록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지 않았다.

CHECK> 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1592~1598) 때 진중에서 쓴 친필일기이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② 일성록은 조선 영조 즉위 36년인 1760년부터 1910년까지의 국정 전반을 기록한 왕의 일기로 총 3,243책의 기록이 남아있다. 일성록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③ 1613년 한국에서 집필된 의학적인 지식과 치료기술에 관한 백과사전으로, 왕의 지시 하에 여러 의학 전문가들과 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허준이 편찬하였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 남북국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해는 일본과 교류하며 무역에도 힘썼다.
- ② 발해의 무왕은 신라와 연합해 당을 공격하였다.
- ③ 발해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이용해 신라와도 무역하였다.
- ④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을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답2>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67~68쪽, 발해의 대외관계**

해설> ② 발해 무왕 때 장문휴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의 요서지방과 산둥 지방을 공격하기도 하였는데(732), 당의 요청을 받은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CHECK> ① 발해 무왕은 돌궐을 이용하여 당을, 일본을 이용하여 신라를 견제하였다.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상경에서 동경을 거치는 무역교통로인 일본도를 통하기도 하였다.

③ 발해 무왕은 신라와 상설 교통로(신라도)를 개설하여 신라와의 관계도 개선하려 노력하였다.

④ 장보고는 완도에 해군 기지이자 무역기지인 청해진을 설치(828)하여 해적을 소탕하였으며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4. 다음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의 이름은 소(昭)다. 치세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데 현명하였다. 빈민을 구휼하고, 유학을 중히 여기며,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 주었다.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다.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불법(佛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고려사절요-

- 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 ②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③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 ④ 승려인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답1>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120쪽, 고려 광종의 정치**

해설> 소(昭)는 고려 광종(949~975)이 생전에 쓰던 이름이다.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의 칭호 및 광덕·준풍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CHECK> ① 광종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경전 시험을 통해 문반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하였다(958).

②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③ 고려 태조 왕건은 사심관과 기인제도를 활용하여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려 하였다.

④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5. 다음 보기에서 백제의 문화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백률사 석당	ㄴ. 정림사지 5층석탑
ㄷ. 창왕명석조사리감	ㄹ. 법주사쌍사자 석등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3>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105, 109쪽, 백제의 문화재**

해설> ㄴ. 7C 무왕 때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 형식의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한 탑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ㄷ. 창왕명석조사리감은 백제 때 사리를 보관하는 용기로 창왕에 의해 567년 만들어 졌으며, 부여의 능산리 절터의 중앙부에 자리한 목탑 자리 아래에서 나왔다.

CHECK> ㄱ. 경주에 있는 백률사의 석당은 신라 이차돈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곳에 그의 사실이 자세히 적혀 있다.

ㄹ. 통일신라시대 충북 보은의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단아하면서도 균형 잡힌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6. 다음의 ㉠에 들어갈 부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때에 이원익이 ㉠ 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봄가을로 민전 1결에 각기 8말의 쌀을 내어 경창(京倉)에 수납하게 하고, 때때로 각 관아의 사주인(私主人)에게 나누어 주어 스스로 상공(上供)을 교역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로써 물화를 저축하고 시장에서 값을 오르내리게 하여 그 수를 넉넉히 남겼던 것이다. - 『택당집』 -

- ①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양인들이 지던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③ 연분9등법에 의해 복잡하게 적용되던 전세율을 고정시켰다.
- ④ 답험손실의 폐단을 줄이려는 제도로, 백성들의 여론조사까지 거쳤다.

답1>

참고> **쌀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10쪽, 대동법**

해설> ㉠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였고(1608), 속종 때 허적의 주장으로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하였으며(1708), 1결당 12두를 납부하게 되었다.

CHECK> ① 대동법은 가호를 기준으로 하였던 공납 부과를 토지 소유의 기준으로 하였다.

②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가호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려 하였다.

③ 인조는 농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를 기준으로 1결당 4두씩 납부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1635).

④ 과전법 실시 이후 답험손실에 따른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세종은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이를 대신하였다.

7. 다음의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효원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충겸(심의겸의 동생)이 장원 급제를 하여 이조 전랑에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 『연려실기술』 -

- ① 외척들의 반발로 이 사건에 관련된 훈구 세력과 사림세력이 제거되었다.
- ② 심의겸 쪽에는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 이황, 조식의 문인들이 가세하였다.
- ③ 이이, 성혼의 문인들은 주기론(主氣論)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 ④ 이 사건 이후 사림을 중심으로 정치적, 학문적 견해 차이에 따른 봉당정치가 나타났다.

답4>

참고> **쌀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227쪽, 봉당정치(동인과 서인)**

해설> 16세기 선조 때 사림이 집권하면서 사림 세력 내의 이조전랑직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왕실의 외척이자 기성 사림의 신망을 받던 심의겸 중심의 세력이 서인으로, 당시 신진 사림의 지지를 받던 김효원 중심의 세력은 동인으로 발전한다. 이에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정국을 이끌어 간다.

CHECK> ① 훈구와 사림의 갈등은 조선전기 사화로 나타났다.

② 선조 때 이황 학파는 서경덕·조식 학파와 함께 동인을 형성하였고, 심의겸은 서인 세력이었다.

③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봉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조선 후기 절충파이다.

8. 다음의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에 의존한 고려의 왕권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 중앙 지배층도 개편되었다. …… 그들은 왕의 측근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삼는 등 사회 모순을 격화시켰다.

- ① ㉡은 가문의 권위보다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였다.
- ② 공민왕은 ㉡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은 사원 세력의 대표인 신돈과 연대하여 신진사대부에 대항하였다.
- ④ ㉡에는 종래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정권기에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에서 성장한 가문 등이 포함되었다.

답3>

참고> **쌀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65쪽, 권문세족**

해설> 친원적인 성향의 ㉡ 권문세족(13세기~14세기)은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에 참여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등 최고 권력층이었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시켜 갔다. 권문세족은 강과 하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또한 몰락한 농민을 농장으로 끌어들여 노비처럼 부리며 부를 축적하였다.

CHECK> ③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하였고,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으며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1366). 신돈은 신진사대부와 연대하여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려하였다.

9. 다음 제도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국왕에게 올려 결재 받게 하였다.

- ①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왕이 재상들을 직접 통솔할 수 있게되어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 ② 무력으로 집권한 태종과 세조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초기의 불안한 왕권을 안정시켰다.
- ③ 민본정치를 추구한 정도전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6조의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였다.
- ④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답4>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210쪽, 의정부 서사제**

해설> ④ 세종은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재상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논의한 다음 합의된 사항을 국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의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CHECK> ①② 육조 직계제는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로써 태종과 세조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였다.

③ 정도전은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을 저술하여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재상론). 의정부 서사제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으므로 재상 중심의 정치와 관련성이 있다.

10. 밑줄 친 ㉠과 직접 관련된 천주교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오전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에 앞서 한국 최대 순교 성지이자 이번에 시복될 124위 복자 중 가장 많은 27위가 순교한 서소문 성지를 참배했다. 이곳은 본래 서문 밖 순교지로 불리는 천주교 성지였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후 박해를 당할 때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으니 …… 황사영백서로 알려진 ㉠ 황사영도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한국일보』, 2014년 8월 16일 -

- ① 모친상을 당해 신주를 불태운 것이 알려지면서 박해가 일어났다.
- ② 함께 붙잡혀 박해를 받은 정하상은 「상재상서」를 통해 포교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 ③ 순조 즉위 후 정권을 장악한 노론 벽파가 반대파를 정계에서 제거하려고 박해를 일으켰다.
- ④ 대원군 집권기에 발생한 대규모 박해로,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답3>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336쪽, 신유박해**

해설> ㉠ 신유박해(1801)가 일어나자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CHECK> ① 정조 때 윤지충이 모친의 장례를 화장장으로 치러 이들을 사형에 처한 것은 신해박해이다(1791. 진산사건).

② 현종 때 정하상 등 많은 신도들과 서양인 신부들을 처형한 사건은 기해박해이다(1839).

③ 신유박해(1801)는 순조 즉위 직후 집권한 노론 벽파 세력이 남이 시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천주교 신자를 박해한 사건이다.

④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정치와 연관 시켜 프랑스 선교사 등을 이용하여 교섭하려다 실패한 사건은 병인박해(1866)로,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명의 교도를 처형하였다.

11. 다음 자료가 기록된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이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은 이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환웅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웅녀와 결혼하였다. 아들을 낳으니 이가 단군왕검이다.

- ① 왕력, 기이, 흥법, 탐상, 의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김부식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 ③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 ④ 삼국에서 고려까지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답1>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183쪽, 삼국유사**

해설> ①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에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1281)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는 등 자주적 역사식이 나타난다. 삼국유사는 왕력과 기이(紀異), 흥법(興法), 탐상(塔像), 의해(義解),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HECK> ②③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기전체로 편찬한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1145).

④ 각훈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해동고승전은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화엄종(교종) 중심으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12. 조선후기 실학자의 저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유형원은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닌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 ② 이익은 『곽우록』을 저술하여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③ 박지원은 청에 갔던 기행문인 『연기』를 저술하였다.
- ④ 안정복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 『동사강목』을 편찬하였다.

답2>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43~350쪽, 조선시대 서적**

해설> ② 중농학과 실학자인 이익이 국가적 당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곽우록을 저술하였다.

CHECK> ① 중농학과 실학자인 유형원은 통치 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백과사전의 대표적 저서이다.

③ 홍대용은 청나라에서 견문하고 난 후 연기(燕記)를 저술하였다(1765).

④ 안정복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여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1778).

13.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
|---|
| ㉠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보호 및 감독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 미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였다.
㉢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영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 이익을, 일본은 영국의 인도지배를 서로 승인하였다.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답2>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42~444쪽, 국권 피탈 과정**

해설> ㉠ 포츠머스 강화조약 (1905.9) ㉡ 가스라·태프트 밀약(1905.7) ㉢ 제2차 한일협약(1905.11) ㉣ 제2차 영·일 동맹(1905.8)

14. 밑줄 친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에 산재해 있던 무장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이 단체를 창설하였다.
--

- ①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통합하여 군사력을증강하였다.
- ② 초기에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지휘와 간섭을 받았다.
- ③ 중국의 화북 전선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 ④ 중국 주둔 미국전략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답3>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27~528쪽, 한국광복군**

해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충칭에서 창설하였다(1940).

CHECK> ① 한국광복군은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흡수하여 군사력을 보강하였다.

② 한국광복군 행동 준수는 총9개의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광복군은 중국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지휘체계는 중국 군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③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를 수행하는 등 항일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④ 한국광복군은 미군(OSS부대)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15. 다음 ㉠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조선시대에 민중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을 드러내고, 세종과 실학자들의 민족지향, 민중지향, 실용 지향을 높이 평가하는 사론을 발표하여 일반 국민의 역사의식을 계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실리적 감각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대미관계 50년사』라는 저서를 내기도 하였다.
--

- ① 1930년대에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진단학회를 창립하여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에 힘썼다.
- ③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④ 우리의 민족정신을 혼으로 파악하고, 혼 이 담겨 있는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답1>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08쪽, 문일평**

해설> ① 문일평은 민족 문화의 근본으로 세종을 대표로하는 '심사상(조선심)'을 강조하였고, 역사학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1934년 여유당전서의 간행을 계기로 전개하였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일제와 극좌노선에 대응하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민족운동이었다.

CHECK> ② 이병도 ③ 백남운 ④ 박은식

16. 다음 ㉠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 식량 조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 ①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으로의 수출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 ② 만주로부터 조, 수수, 콩 등의 잡곡 수입이 증가하였다.
- ③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 ④ 많은 수의 소작농이 이를 통해 자작농으로 바뀌었다.

답4>

참고> 쌀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64~465쪽, 산미증식계획

해설> ㉠ 산미증식계획은 1차 세계대전 후 일본 내의 이촌향도현상이 진행되면서 쌀값이 폭등하여 혼란이 있을 무렵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한반도에서 착취하려 시작한 것이 산미증식계획이다(1920~34).

CHECK> ① 일제가 강제로 수탈해 간 미국이 증산량보다 많아 식량 부족이 심화되었다.

②③ 일제는 쌀 수탈로 인한 국내의 식량문제를 만회하기 위하여 만주에서 조,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하였다.

④ 농가 부채의 증가로 많은 수의 농민층은 몰락하게 되었고, 대다수의 농민은 화전민이 되었다.

17. 밑줄 친 그들 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한 일이다. 내 친구 중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쩌다 조선의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것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애석하다고 했다. 진실로 일본인이 조선의 운명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했겠는가? 우리가 만약 국가적 발전의 기회를 보았다면 일본인들은 백방으로 방해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 그들을 원조했겠는가?
- 『한국통사』 -

- | | |
|-----------------------|----------------------------|
| ㉠ 토지의 평균 분작을 실현한다. | ㉡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한다. |
| ㉢ 보부상 단체인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 ㉣ 의정부, 6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은 없앤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답4>

참고> 쌀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84~385쪽, 갑신정변

해설> 사료는 갑신정변을 추진한 김옥균 등의 급진개화파에 대하여 박은식이 평가한 것이다.

CHECK> ㉠ 평균 분작은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폐정 개혁안 12개조의 내용이다.

㉡ 민씨정부는 제3국의 분쟁 시 러시아 함대가 출동한다는 내용의 밀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청의 압력으로 폐기되고 말았다(1886).

㉢ 갑신정변의 주도세력들은 해상공국을 혁파하려 하였다.

㉣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에서 의정부와 6조 외에 필요 없는 관청을 없애려고 하였다.

18. 발생 시기 순서로 나열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 - 아관파천 - () - 대한제국 수립

- ① 단발령 공포
- ② 독립협회 결성
- ③ 흥범 14조 반포
- ④ 춘생문 사건 발발

답2>

참고> 쌀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02~405쪽, 조선 말 시대구분

해설> 을미사변(1895.8.) - 아관파천(1896.2) - () - 대한제국의 선포(1897.10)

CHECK> ① 단발령 공포(1895.8) ② 독립협회 결성(1896.7) ③ 흥범 14조 반포(1895.1) ④ 춘생문 사건(1895.11)

19. 다음 원칙을 발표한 기구가 내세운 주장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 합작은 민주 독립의 단계요,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 오던바, 드디어 …(중략)…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정하였다.

- ① 외국 군대의 철수 ②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
③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 ④ 유엔(UN)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답2>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43쪽](#), [좌우합작운동](#)

해설>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발언에 반대하여 중도우파 김규식과 중도좌파 여운형은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1946.7)하여 합작운동을 추진하였고, 좌우합작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10).

CHECK> ①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② 좌우합작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법(1946)을 제정하여 실질상의 토지 국유화를 실현하였다.

④ 제2공화국(장면 내각)은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2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 놓는다.
 - 나머지 60%의 유권자는 3인, 5인,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 투표소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 『동아일보』, 1960년 3월 4일

- ① 4·19 혁명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②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 ③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 ④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답2>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60~561쪽, 3·15부정선거

해설> 자료는 3·15부정선거의 내용이다. 이승만 정부는 부정과 부패, 장기 집권으로 민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1960년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CHECK> ①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4.19혁명이 전개되었다(1960).

② 4·19혁명 후, 사태 수습을 위해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과도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민의원, 참의원)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3차 개헌, 1960.6.)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④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어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후 탄압하였다.